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인의 경제활동

*Economic Activities in the Light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김민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본고는 한국복지패널 1차~4차 자료를 이용해 한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동향을 개인 및 가구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거시경제활동 지표와 더불어, 연간취업경험률, 가구내 취업자수 지표 등을 주요 기준으로 비교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양상을 다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 및 가구 취업지표 분석 결과 한국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계층, 연령, 성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근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과 근로연계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1. 서론

본 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거시 경제활동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고용안정성 지표로서 종사상 지위 비중의 변화 동향을 살피고, 개인단위 수준의 분석에서 나아가 가구단위의 시각에서 가구 내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수준 및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주요 기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근로취약계

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경제활동지표 산출방식¹⁾

1) 거시 경제활동참가지표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세 이상 인구 중 근로능력 또는 근로의사가 없거나, 가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

1) 한국복지패널의 경제활동상태는 각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 등이 자동적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시 지난 1년간 주된 일자리를 파악하도록 있다. 본 기준에 관한 내용은 한국복지패널의 각년도 유저가이드를 참조하면 됨.

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²⁾을 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고용률은 생산가능 인구³⁾ 중 취업자수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낸다. 고용률을 통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데 있어 실업률 통계의 한계, 즉 불경기 에 구직단념자가 증가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실망실업자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2) 연간취업경험률

연간 취업경험률은 조사시점 당시 미취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연간 경제활동 참여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 가구용 조사표의 소득 조사에서 묻고 있는 경제활동 해당여부 변수(h04_pers_income1~h04_pers_income5)를 활용해 한 항목 이상에서 응답하였으면 연간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와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활동 소득변수를 통해 취업경험 인구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할 경우 연간 취업경험 인구의 과소추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무급가족종사자일 경

우에 연간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연간취업경험률을 구분하여 지표를 살펴보았다.

3) 종사상 지위 비중

종사상 지위(또는 고용 지위)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노동의 질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중·고생이 아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응답하게 된다. 미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비중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변화⁴⁾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2008년의 경우 종사상 지위 비중을 소득분위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4) 가구내 취업자 수 및 가구취업자수

소득 및 소비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구를 단위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참여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개인별 취업 상태(h0403_4~h0403_84)를 파악하여 가구내 취업자 수를 합산, 산출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가구내 취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고, 2008년의 경우 소득분위,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

2) 구직활동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지는데, ILO에서는 1주일, OECD에서는 4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한국복지패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함.

3) 현재 통계청에서는 생산가능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 수로 고용률을 산출하고 있다. OECD에서는 고용률 지표 생산에 있어 생산가능 인구의 연령을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기준에 준하여 작성함.

4) 경제활동참여상태의 경우 2005년 데이터에서 임시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데이터 초기 구축에 있어서 불안정으로 간주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함.

이는 지 살펴보았다. 한편, 저소득분위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단순근로미약자인 근로무능력가구가 많아 가구내 취업자 수가 과소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가구내 취업자수를 구분해보았다.

한편, 가구내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 취업지수를 생성하였다. 이는 가구 내 15세 이상 근로가능자(근로가능자 + 단순근로가능자)⁵⁾ 중 가구내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하였으므로, 분모는 1명 이상의 값을 가지며 분자는 0명 이상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0일 경우는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1명 이상이나, 취업자 수는 0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1일 경우는 가구 내 근로능력 가능한 사람이 모두 취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분위, 지역에 따라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3. 경제활동 지표 분석결과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연도별 경제활동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점차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0.56%, 실업률은 5.15%, 고용률은 57.44%의 수치를 나타냈다. 소득 1분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차 감소해 2005년에 43.59%였던 것이 2008년에는 41.5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나타냈다.

(2)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연령에 따라서는 2008년의 경우 중장년층(30~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6.85%, 고용

표 1. 주요 경제활동 지표 산출방식

지표	산출방식
경제활동참가율	$\frac{\text{경제활동 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실업률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 인구}} \times 100$
고용률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연간취업경험률	$\frac{\text{연간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종사상 지위비중	취업자 내 종사상 지위 비율
가구내 취업자 수	가구내 경제활동인구의 합
가구취업지수	$\frac{\text{가구내 취업자 수}}{\text{가구내 15세 이상 근로능력자 수}}$

5) 가구 내 가구원의 근로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능력상태(h0403_2~h0403_82) 변수를 활용하였음.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개인의 심신능력상 근로능력정도를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 가능(집안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 미약자(집안 일만 가능) ④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묻고 있다. 본 지표에서 근로가능자는 ① 근로가능자와 ② 단순근로가능자를 포함함.

표 2. 소득분위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참가율	2005년	57.42	43.59	56.34	57.73	63.83	66.58
	2006년	57.06	42.06	56.95	60.28	63.20	63.88
	2007년	58.41	42.17	56.80	62.78	65.40	65.92
	2008년	60.56	41.53	60.37	64.67	67.79	68.80
실업률 ⁶⁾	2005년	8.12	16.88	11.07	7.56	5.24	2.81
	2006년	6.68	15.57	9.04	5.56	4.45	1.73
	2007년	5.63	13.09	8.10	4.72	3.24	1.78
	2008년	5.15	12.25	6.59	4.16	2.72	2.92
고용률	2005년	52.76	36.23	50.10	53.36	60.48	64.71
	2006년	53.25	35.52	51.81	56.93	60.39	62.78
	2007년	55.12	36.65	52.20	59.82	63.28	64.74
	2008년	57.44	36.44	56.39	61.98	65.95	66.79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률이 7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고령층(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57.78%, 55.64%로 나타났고, 청년층(15~29세)의 경우 각각 46.43%, 41.84%로 나타났다. 연령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청년층의 실업률은 9.9%로 중장년층(4.19%), 고령층(3.6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48.3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 또한 남성 69.26%, 여성 45.89%의 비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률이 2005년 38.79%였던 것에 반해 2008년에는 45.89%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간 취업경험률

(3) 성별 경제활동지표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지표를 살펴보면, 2008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3.01%로 여성

(1)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연간 취업경험률은 고용률 지표 등과 같이 조사시점의 특성상 비경제활동인구 분류되는

6) 한국복지패널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기준시점은 전년도 12월 31일임. 1차 조사 분석결과 실업률이 통계청의 수치보다 높게 나온 점이 기준시점에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어, 후속 조사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농업종사자, 일용직 임금종사자를 취업자로 파악하는 조사지침이 보완되었음.

표 3.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구분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05년	57.42	41.99	74.69	52.77	26.34
	2006년	57.06	37.74	76.00	55.04	27.39
	2007년	58.41	41.52	77.50	55.55	29.05
	2008년	60.56	46.43	76.85	57.78	29.48
실업률	2005년	8.12	14.95	6.17	9.95	7.55
	2006년	6.68	11.15	5.72	6.68	6.46
	2007년	5.63	9.52	4.87	5.59	4.42
	2008년	5.15	9.90	4.19	3.69	2.27
고용률	2005년	52.76	35.71	70.08	47.52	24.35
	2006년	53.25	33.54	71.65	51.36	25.62
	2007년	55.12	37.57	73.73	52.45	27.76
	2008년	57.44	41.84	73.64	55.64	28.81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표 4. 성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05년	57.42	73.39	43.18
	2006년	57.06	72.03	43.06
	2007년	58.41	72.36	45.72
	2008년	60.56	73.01	48.39
실업률	2005년	8.12	6.76	10.19
	2006년	6.68	5.57	8.32
	2007년	5.63	5.12	6.36
	2008년	5.15	5.14	5.16
고용률	2005년	52.76	68.43	38.79
	2006년	53.25	68.02	39.97
	2007년	55.12	68.66	42.82
	2008년	57.44	69.26	45.89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장 참여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2005년에 55.9%였던 비율이 2008년에는 64.9%까지 상승하였으며, 근로능력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경우에도 2005년 62.02%이었던 비율이 2008년 69.05%까지 증가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역시 저소득분위 보다 고소득분위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저소득분위의 경우 고령자를 비롯해 근로능력가구의 비중이 높아 근로능력 가구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전년도에 걸쳐 55%를 웃도는 비율이 근로경험에 참여한

인구를 포괄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연간 노동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소

표 5. 소득분위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05년	55.90	41.36	54.47	55.99	62.41	66.23
	2006년	60.97	46.34	60.48	63.70	67.40	67.94
	2007년	61.21	45.64	59.55	65.58	68.53	67.74
	2008년	64.90	47.09	64.19	69.82	72.66	71.08
근로능력가구원	2005년	62.02	53.96	59.76	59.97	65.53	68.74
	2006년	66.79	59.28	65.44	67.27	69.91	70.67
	2007년	66.61	57.46	64.53	68.54	71.09	69.87
	2008년	69.05	56.48	67.86	72.02	74.36	72.49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득분위의 연간취업경험률이 점차 상승하는 경향과 다르게 소득 1분위의 경우 2006년(59.28%)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연령별 연간취업경험률은 비교해보면 2008

년 기준 30~54세의 중장년층이 7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2008년 연간 취업경험률이 62.56%로 2007년(58.6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역시 2008년 기준 53.15%로 지속적으로 연간 취업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경우, 초고령층(65세 이상)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표 6. 연령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구분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가구원 전체	2005년	55.90	41.18	71.72	50.59	29.13
	2006년	60.97	47.64	76.91	57.85	33.24
	2007년	61.21	46.51	78.47	58.68	33.89
	2008년	64.90	53.15	79.62	62.65	34.55
근로능력가구원전체	2005년	62.02	41.53	73.51	57.39	52.83
	2006년	66.79	47.85	78.29	64.88	53.39
	2007년	66.61	46.73	79.71	64.57	51.11
	2008년	69.05	53.40	80.98	67.46	50.26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3)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을 살펴보면, 2008년 남성 76.11%, 여성 53.93%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가구원만 살펴볼 경우, 남성 79.76%, 여성 58.2%로 여성의 연간 취업경험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취업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

3) 종사상 지위 비중

(1) 종사상 지위 비중의 변화

2006년 51.37%에 머물렀던 상용직의 비중이 2008년 45.09%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임시직의 비중은 2006년 10.73%였던 것이 2008년에는 18.5%로 증가하였다. 그 뒤로 자영업의 비중이 15.94%를 차지하였고, 일용직 10.33%, 무급가족종사 5.47%, 고용주 4.15%, 자활 및 공공근로 0.52%의 비중을 나타냈다.

(2) 2008년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 비중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고, 자영업과 일용직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자영업의 비중이

표 7. 성별 연간 취업경험률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가구원 전체	2005년	55.90	71.53	41.96
	2006년	60.97	74.62	48.70
	2007년	61.21	74.18	49.41
	2008년	64.90	76.11	53.93
근로능력 가구원전체	2005년	62.02	76.77	47.83
	2006년	66.79	79.51	54.58
	2007년	66.61	78.82	54.89
	2008년	69.05	79.76	58.20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표 8.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연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2006	51.37	10.73	9.63	0.59	4.23	16.71	6.74	100.00
2007	49.92	10.79	11.69	0.54	4.39	16.56	6.11	100.00
2008	45.09	18.50	10.33	0.52	4.15	15.94	5.47	100.00

자료: KOWEPS 2~4차년도 원자료

29.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용직의 22.08%, 임시직 17.53%의 비중을 나타내 불안정한 근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5분위에 위치한 가구원 중 62.94%가 상용직에 종사하였으며, 임시직 12.75%, 일용직 10.33%, 자영업 9.28% 등의 비중을 보였다.

4) 가구내 취업자 수 추이

(1) 가구내 취업자 수 비중의 변화

본 절에서는 가구내 취업자 수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5년도에 가구내 취업자 수가 1명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7.49%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2006년에 45.06%, 2005년에 42.13%, 2008년에 41.12%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구내 취업자 수가 2명인 가구의 비중은 32.46%로 2005년 29.15%였던 것

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3명 또는 4명이 가구 수 역시 증가한 것은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로능력 가구원을 제외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근로능력 가구 중 가구내 취업자 수가 1명인 가구의 비율은 2005년 51.5%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8년 43.76%로 감소하였다. 반면, 가구내 취업자 수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가구 내 취업자 수가 한명도 없는 가구 비율은 2008년 1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08년 소득분위별 가구내 취업자 수

2008년 소득분위별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포함하였을 때 소득 1분위에서 가구내 취업자 수가 한명도 없는 가구의 비율은 59.38%로 나타났으며,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48%로 나타나 소득1분위의 경제활동 참가상태가 취약

표 9. 2008년 소득분위별 종사상지위 비중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1분위	14.88	17.53	22.08	2.63	2.40	29.92	10.56	100.00
2분위	32.14	22.70	18.03	0.70	1.90	18.56	5.98	100.00
3분위	45.82	21.03	9.38	0.04	2.42	16.26	5.05	100.00
4분위	53.50	19.29	6.22	0.16	3.99	12.54	4.32	100.00
5분위	62.94	12.75	2.70	0.00	8.56	9.28	3.78	100.00
전체	45.09	18.50	10.33	0.52	4.15	15.94	5.47	100.00

자료: KOWEPS 4차년도 원자료

표 10. 가구내 취업자 수 비중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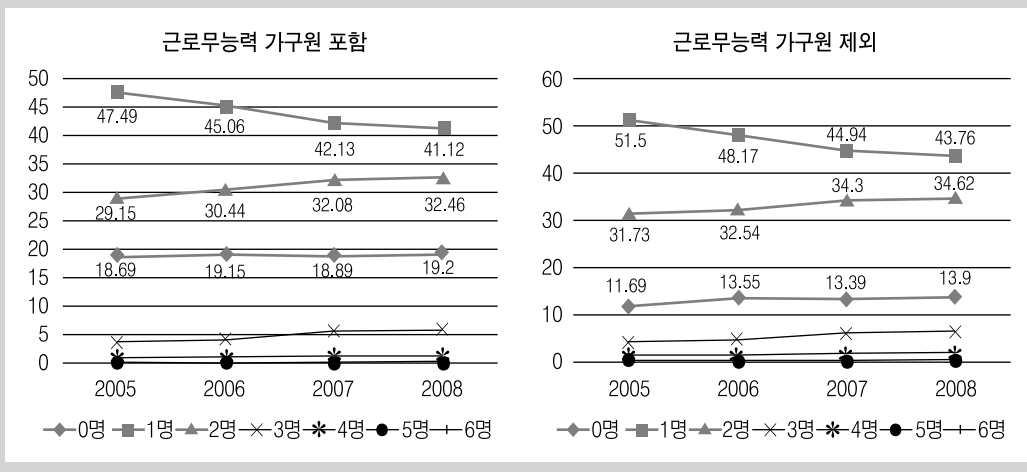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전체
전체	2005년	18.69	47.49	29.15	3.64	0.91	0.07	0.05	100.00
	2006년	19.15	45.06	30.44	4.22	0.97	0.14	0.02	100.00
	2007년	18.89	42.13	32.08	5.60	1.14	0.15	-	100.00
	2008년	19.20	41.12	32.46	5.79	1.34	0.10	-	100.00
근로무능력 가구원제외	2005년	11.69	51.50	31.73	3.96	0.99	0.08	0.05	100.00
	2006년	13.55	48.17	32.54	4.52	1.04	0.15	0.03	100.00
	2007년	13.39	44.94	34.30	5.99	1.22	0.16	-	100.00
	2008년	13.90	43.76	34.62	6.19	1.43	0.10	-	100.00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그림 1. 가구내 취업자 수 비중의 연도별 추이

(단위: %)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한 분석표에서 소득 2분위 가구내 취업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30% 이상이 2명 이상의 가구내 취업자 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가구내 취업자 수가 한명도 없는 가구

의 비율이 2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근로무능력 가구원을 제외하였을 때 농촌의 취업자 수가 한명도 없는 가구의 비율은 15.45%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대도시(14.11%) 또는 중소도시(13.38%)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구내 취업자 수가 2명인 비율은 농촌이 42.57%

그림 2. 2008년 소득분위별 가구내 취업자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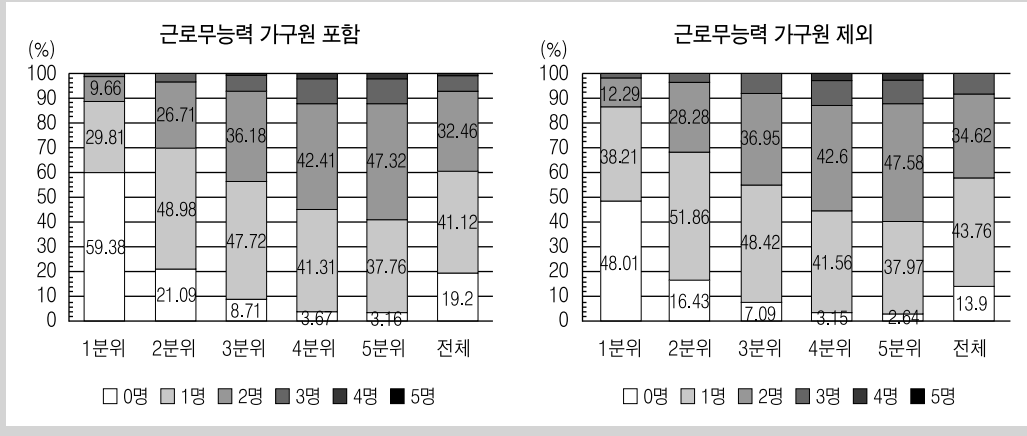


표 11. 2008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자 수 비중

지역		취업자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총합
전체	대도시		19.05	42.20	30.30	6.87	1.51	0.07	100.00
	중소도시		18.20	41.83	33.65	4.99	1.18	0.15	100.00
	농촌		24.98	31.94	37.67	4.17	1.24	0.00	100.00
	전체		19.20	41.12	32.46	5.79	1.34	0.10	100.00
근로능력 가구원제외	대도시		14.11	44.75	32.17	7.29	1.61	0.07	100.00
	중소도시		13.38	44.22	35.68	5.31	1.26	0.16	100.00
	농촌		15.45	35.83	42.57	4.74	1.41	0.00	100.00
	전체		13.90	43.76	34.62	6.19	1.43	0.10	100.00

자료: KOWEPS 4차년도 원자료

로 타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가구 내 취업자 수가 3명인 비율은 대도시가 7.29%로 중소도시 또는 농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소득분위별 가구 취업자수

가구 내 근로능력가구원 수 중 취업가구원 수

의 비율을 나타낸 가구 취업지수를 연도별로 살펴해보았다. 전체적으로 그 수치는 0.61~0.62로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2005년 0.51이었던 지수가 2008년 0.41로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저소득가구에서의 취업가구원수의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 3~4분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지역별 가구 취업지수를 살펴보면, 대도시 0.61, 중소도시 0.63, 농어촌 0.67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농어촌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대도시의 가구에서 근로능력 가구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결론 및 함의

이상으로 한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동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기준에 따라 거시경제활동 지표를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더불어 여성, 고령자, 나아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률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내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하위 소득계층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따라서 가구 중심적 접근

표 12. 소득분위별 가구 취업지수 (근로능력가구원만 포함)

연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0.62	0.51	0.58	0.60	0.66	0.72
2006	0.61	0.43	0.58	0.63	0.65	0.71
2007	0.62	0.44	0.59	0.64	0.68	0.71
2008	0.62	0.41	0.58	0.65	0.71	0.72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표 13. 지역별 가구 취업지수 (근로능력가구원만 포함)

연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0.62	0.59	0.64	0.73
2006	0.61	0.58	0.62	0.70
2007	0.62	0.59	0.64	0.69
2008	0.62	0.61	0.63	0.67

자료: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을 통해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 또는 각종 사회 서비스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능력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취업지수를 분석한 결과, 최하위 소득계층의 가구 취업지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 이들에 대한 근로 참여 및 유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계층, 고령층, 여성 등의 경우도 연간 취업경험률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한 비중 근로소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계

층의 경우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 비중을 살펴 보면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의 영향이 일차적으로 불안정한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근로취약계층에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 있어 영세자영자와 임시일용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마련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